同窓會 指標

•參與
•協力
•榮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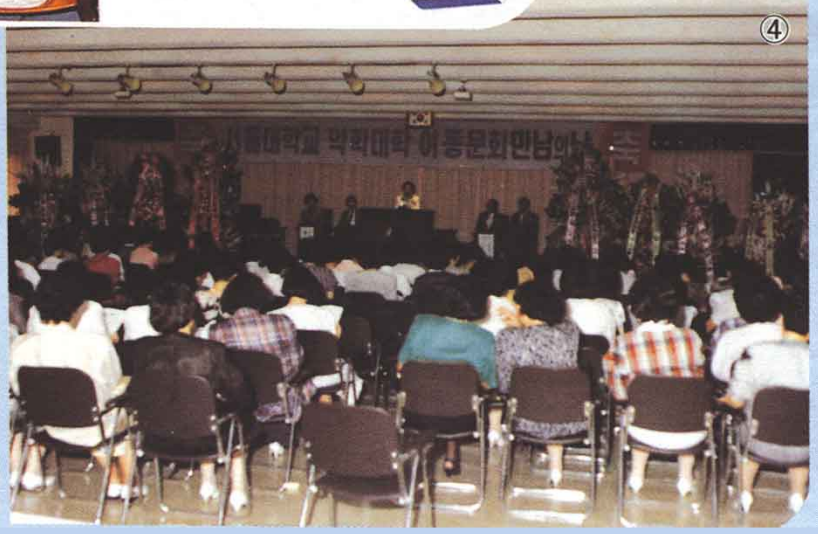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大學校
同窓會報

發行人 崔 主 鎬
編輯人 李 聖 秀
印刷人 韓 鍾 愚

發 行 所
서울大學校 同窓會
郵便番号 121-040
서울特別市 麻浦南 桃花洞 18-2
電話 : 702-2233～5, 717-8536～7

●銀行지로番号 : 7500875
●對替口座서울 : 010017-31-0621565



活性化 다짐한 각급同窓會 總會 : 참여와 협력으로 발전을 다져가는 각 단과대학동창회가 지난 6월 정기총회로 러시를 이루었다. (사진) ① 1백여명이 참석한 法大총회 ② 총회에 이어 登山大會로 성황이룬 工大 ③ 齒大총회 ④ 同窓會舘에서 열린 藥大 月桂會 ⑤ 會員名簿편찬문제로 개최된 同窓會 會長團회의.

同硯의 한마음, 새로이 發展다짐

冠岳春秋

單科大學동창회의 할 일

新綠의 달 5월과 6월에는 잇달아 單科大學동창회總會가 열렸다. 5월26일에는 齒科大學同窓會정기총회가 5월28에는 工科大學同窓會정기총회가, 이어 같은 날 師範大學同窓會정기총회가 열렸으며, 6월14일에는 法科大學同窓會정기총회가 열렸다. 이들 單科大學동창회는 비교적 활발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定評이 나있다.

會長團의 임기가 2년이며 이번에는 中間總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기총회에서는 豫算과 決算을 의결하고 친목을 도모하는데 그쳤다. 1萬 가까운 會員을 가진 단과대학동창회의 總會참석인원이 1~2백명에 불과한 경우도 있어 1년에 한번밖에 없는 總會의 참석률高揚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定期總會가 동창회활동에 관심있는 同門들의 회합만이어서는 안되고 新入同門과 先輩同門들의 친교의 장이 되어야 하겠다.

이점에서 工大同窓會나 師大同窓會가 登山大會를 아울러 개최하여 친목을 도모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하겠다. 동창회의 할일은 많다. 母校發展의 지원도 해주어야 하겠고, 후배재학생들의 장학금도 지원해 주어야 하겠다. 그러나 무어니 무어니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동창간의 친목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동창회가 훈장받은 同門들에게 감사패나 주고 출세한 동창에게 아부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되겠다. 나라에서 勳章을 준 사람에게 동창회서까지 공로패를줄 것이 아니라 동창회는 同窓會事業의 유공자나 母校發展에 공헌이 있는 恩師들에게 감사패나 공로패를 전달하여야 한다. 同窓會運營을 집행부 몇사람의 社會모임정도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어떤 單科大學同窓會의 경우에는 심지어 總同窓會와 경쟁관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여 會費독촉에서 總同窓會와의 관계를 歪曲하고 있는 경우조차 없지 않아 근심스럽다. 總同窓會는 어디까지나 單科大學동창회를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고 單科大學동창회가 하기어려운 名簿作成이라든가 同窓會會報發刊등으로 단과대학동창회를 지원하는 단체임을 깨달아야 하겠다. 總同窓會는 오히려 단과대학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單科大學同窓會가 구성되지 않은 大學이나 學科등에 대해서 동창회구성을 후원하고 그 활동을 會報를 통해서 弘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總同窓會는 단과대학동창회의 聯合體性格을 가졌었으나 이제 母校가 冠岳캠퍼스로 統合되게 됨에 따라 名實相符한 總同窓會로서 서울大人의 共同體의식을 고취하고 서울大人의 權益向上을 위한 기구로 정착하고 있다. 그동안 각단과대학동창회가 總同窓會發展을 위하여 노력해 준 공로를 치하하면서 앞으로 가일층의 협조·참여가 요청되고 있다. 總同窓會의 활동은 本軌道에 진입한지 오래며 全서울大人의 集結體로서 손색이 없다고 하겠다.

그렇다고 하여 총동창회가 단과대학동창회를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다. 16만명의 동창이 一堂에 모이기는 어렵기 때문에 單科大學이나 學科同窓會의 활동이 요청되는 것이다. 각단과대학동창회도 이제는 專門別 性別로 分化하는 경향이 있다. 學科同窓會, 民主同窓會, 女性同窓會등의 활동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6월7일에는 藥大女同門의 만남이 있었는데 정보교환과 친목행사가 있었다고 한다. 藥大同門의 경우 女同門들이 過半數를 차지할 것으로 보여 그 활동이 더욱 주목된다. 法大에도 女同門들의 모임이 있으며 기타 대학에서도 女同門모임이 결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專門同窓組織도 그 성화가 요망된다. 이들 단체의 사무실도 동창회會舘에 마련되었으면 하며 앞으로 이들 전문동창회와 單科大學同窓會가 總同窓會에의 적극적인 협조관계의 수립이 요망된다. 總同窓會의 豫算이 넉넉해지면 각단과대학동창회등에 組織支援을 해주는 방안도 硏究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는 후배들이 없는 司法大學院이나 敎育大學院, 新聞大學院동창회 활동등도 동창회 本部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겠다.

單大동창회는 總同窓會가 하기 어려운 同門찾기운동을 벌인다든가 母校 單科大學 학생활동이나 敎授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아울러 친목활동을 보다 돈독히 함으로써 相互補完作用을 해야 하겠다.

總同窓會의 사업은 全大學的인 것에 국한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單科大學동창회는 各大學的인 차원에서 보다 활발한 硏究支援事業을 벌이고 母校單科大學의 발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주어야 하겠다. 각단과대학동창회의 활성화와 總同窓會의 활성화는 멜래야 멜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相互協調와 補完作業이 요망된다. 단과대학동창회의 구성과 운영이 활발해지기 바라며 各單科大學同窓會의 발전을 빈다.

和合의 合唱 冠岳에 메아리

工大 法大 師大총회 잇따라

齒大、會長 새로뽑고 結束다짐

지난달에는 單大 행사가 풍성하게 줄을 이어 동문들의 화합의 목소리가 관악에 울려 퍼졌다. 일부 동창회에서는 가족을 동반한 모임을 가짐으로써 더욱 단합된 모습을 과시했다.

▲工大同窓會(회장 崔鍾浣)는 지난 5월28일 工大 교수회의실에서 8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기만료된 副會長, 常任理事, 理事의 선임은 각학과 동창회에 추천을 의뢰하기로 결의했다. 회원 약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9시 30분에 개회된 이날 총회에서 崔鍾浣회장은 인사를 통해 科學의 중요성과 과학기술 각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동문들의 노고를 치하한 후 자유주의 사회이건 공산주의 사회이건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해야 선진국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이데올로기보다 앞서 그렇지 못하면 후진국임을 명심하여 과학기술이 중요한 정책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오는 8월말로 정년을 맞는 모교 김효경(기계)·이정한(전자)교수와, 내년 2월말로 퇴임하는 양홍석(전기) 교수에게 그동안 모교 발전및 후진양성에 힘쓴 공로를 치하하고 기념품을 증정했으며, 이어 88년도 결산보고와 8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정총후 11시부터 열린 樹木園등산대회에는 가족 동반으로 2백50여명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룬 가운데 푸짐한 경품증정과 노래자랑등을 가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法大동창회(회장 金性洙)는 지난 6월14일 오후 6시30분 프라자호텔 덕수홀에서 8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前年대비 1천만원 증액된 총 1억3천6백89만원 규모의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동문 가운데 약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會長人事 및 신임회원 환영사, 신임회원대표 답사, 모교 학장의 축사에 이어 의하고 88년도의 決算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우수지부 간사및 각종 훈포장 수상자에게 감사패·기념패를, 특별장학기금 출연자에게는 장학패를각각 증정하였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法大 百年史 자료집제2집」이 선을 보여 더욱 총회를 돋보이게 했다.

▲師大同窓會(회장 朴智洙)는 지난 5월28일 등산대회겸 정기총회를열고 89년도 예산안및 사업계획안을 심의, 확정했다.

오전 9시부터 열린 등산대회에서는 90여명의동문이 2시간에 걸쳐 峯山 蘭香園까지 등반하며 선후배간의 友誼를다졌으며 중식후 이어진 정총에서는 동창회및 장학회의 88년도 결산보고와 89년도 사업계획및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어 여흥순서에서는 朴贊玉(남정서예실) 동문의 사회로 장기자랑및 행운권 추첨이 있었으며 참가동문들은 푸짐한 상품을 나누며 만남의 기쁨을 가졌다.

▲樂大 女樂師 모임인 월계회(회장 金長淑)는 지난 6월7일 오후 2시30분부터 本會會舘 5층 관악홀에서 제2회 「여동문 만남의 날」 행사를 가졌다.

1백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金회장은 「바쁜시간속에서도 동문이라는 끈끈한 인연의 정을 잊지 않고 다시 모이게 되어 반갑다」며 「극도로 혼란해진 사회적 위기를 넘기고 樂師의 발전·女性의 발전·國家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지혜가 필요하므로 각기 처한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禹東一 藥大同窓會長은 격려사를 통해 「女同門들의 만남의 날 행사를 男同門을 대표해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한 후 「동창회내에서 여동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져 감으로 오늘의 모임을 계기로 한층 더 발휘, 서로상부상조하고 사회에 공헌하기를 바란다」고 치하하였다.

다음으로 母校 鄭源根 교총장 환영의 말에는 40여명의 동문이 참석, 모교와 해외지부간의 유대강화및 모교발전에 대한 환담을 나누었다. 趙完圭총장은 아시아 태평양지역 대학총장회의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5월9일부터 12일까지 열린 회의에 참석했다.

새名簿 내용 77版 準하기로

常任理事會委任따라 會長團 회의서 決議

새 名簿 편찬원칙을 최종 결정키 위한 동창회 會長團 회의가 지난 6월9일 오후 6시30분 崔主鎬회장, 李聖秀명부편찬위원장을 비롯한 동창회 회장단과 趙完圭총장 金榮國부총장이 참석한가운데 리베라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04차 常任理事會의 위임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專門大學院 研究課程 수료자 및 醫大 부속 看護高等學校와 高等看護學校 출신자들의 회원명부 등재여부를 결정짓기 위해 소집된 것인데, 일부에서의 異論도 없지 않았으나 충분한 토의와 해당 동창회에서 제출한 자료등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이들도 77년판 會員名簿에 준해 새 명부에 모두 등재키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에따라 새명부의 편찬원칙은 常任理事會 및 會長團 회의의 결의를 거쳐 일단락 됐다.

大學院·專門大學院 名簿編纂會議 開催

한편 會長團회의에 앞서 지난 5월31일 오전 11시에는 동창회장실에서 大學院·專門大學院 명부편찬위원회의를 소집, 이들의 처리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가진바 있다.

3차 명부편찬회의 성격으로 개최된 이날 회의는 會長團회의에 대비, 그동안 常任理事會서 조차 贊反으로 의견이 엇갈렸던 이들의 명부등재여부에 대해 직접 당사자의 의견을 다시한번 수렴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날 참석한 편찬위원들은 대부분이 研究課程 수료자를 새 명부에 등재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했으며, 이뜻을 회장단 회의에 전달해줄것을 건의했다.

또한 看護학과동창회회장단도 6월8일 동창회 사무실로 李聖秀명부편찬위원장을 방문, 看護高等學校와 高等看護學校 출신자들이 정규과정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학교에 입학했음을 증명하는 학적자료를 제출하면서 새 명부에 등재해줄것을 강력히 건의한바 있다.

◇ 元老선배가 막내 後輩를 격려하는 모습은 보기에도 아름다웠다. 〈法大동창회 총회에서〉

趙完圭총장 歡迎의밤 개최

北加州

동창회 北加州지부(회장 임승쾌)에서는 지난 5월11일 趙完圭모교총장 환영의 밤을 개최했다.

「모교와 강화및 모교발전에 대한 환담을 나누었다. 환·아시아 대학총장은 샌프란시스코를방문, 12일까지 교총장 환영의 밤에는 40여명의 동문이 참석, 모교와 해외지부간의 유대

서울大學校의 뿌리 ⑬

社會科學大學 〈下〉

1975년 冠岳캠퍼스로 移轉하면서 改編
文理大·商大 일부學科와 新聞大學院 흡수

—韓 基 彦
(49년 師大卒·母校교수)

앞서 나는 사회과학대학의 뿌리는 문리과대학에 있다고 지극히 단순화한 표현을 하였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사회과학대학은 문리과대학중 몇학과를 주축으로 하면서 상과대학의 일부와 신문대학원이 합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다만 상과대학의 分身인 經營大學, 그리고 신문학과의 전신인 新聞大學院에 대해서는 별도로 독립된 항목을 마련하여 후에 언급할 생각이다.

사회과학대학에 있는 지금의 經濟學科와 국제경제학과의 뿌리는 商科大學에 있다. 이 두 학과는 1975년 사회과학대학 成立 당시에는 「經濟·貿易學科」 하나였었는데, 1979년에 이르러 지금과 같이 두학과로 나뉘어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상과대학의 또 한 줄기가 이미 말한 바와같이 지금의 經營大學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商科大學으로 말하면 이것 역시 두줄기가 합류해서 국립서울대학교의 발족과 함께 成立되었던것이다. 한줄기는 京城高等商業學校(후에 경성경제전문학교)요, 또 한줄기가 京城帝國大學法文學部經濟學科이다.

여기에 있어 크게 주목되는 것은 두 교육기관의 합류가 단순한 기구상의 통합만이 아니고 당시 두갈래의 흐름이었던 日帝時代의 經濟學을 하나로 묶은 점이라 하겠다. 즉, 林鍾哲교수(현 사회과학대학장)의 표현을 빌리면 전자인 高商은 상업실무 위주의 교육에 치중하면서 그 이해에 필요한 최소한 經濟理論이 교육 연구되어 온데 반하여, 후자의 경우는 『二次大戰으로 인하여 구미에서의 경제학 연구의 새로운 물결에서는 거의 완전히 격절된채 古典派의 꿈길을 헤매면서 식민지사관 확립에 이바지할 韓國社會經濟史硏究및 식민지 수탈 강화와 일제의 침략전쟁 노력 극대화에 기여할 파시스트적 통제경제이론이 일본인교수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 底流의 일변에는 마르크스경제학에 대한 향수가 흐르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서울대학교 商科大學의 성립은 이러한 지적 혼돈속에서 『경제학연구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 新經濟學이 한국에서도 經濟學硏究의 主流를 이루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反主流의 經濟理論 연구를 위해서도 유일한 온상이 된다는 二律背反的인 偉業을 하였던 것이다』(서울大學校三十年史, 585페이지)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邊衡尹교수는 오늘의 「經濟學科」를 말하는 대목에서, 그간의 學史를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말하고 있다. 즉, 『(상과대학) 설립 초기에는, 마르크스경제학과 마르크스경제학자가 지배적이었던 해방직후의 분위기로 미루어 보아 그여진이 남아 있었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1948년 8월 15일에 정부가 수립된 이후 그리고 6·25를 겪으면서 마르크스경제학자는 완전히 퇴장했고 마르크스경제학도 과목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지는 상태로까지 퇴색되었다. 그리하여 1953년에 부산임시캠퍼스에서 서울캠퍼스로 돌아왔을 때에는 오늘날의 경제학과의 제1차적인 틀이 잡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그당시 그리고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경제학과의 분위기는 미국의 경제학을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그런 것이었는가 하면 미국유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분위기가 바뀐 것은 대체로 1960년대의 후반부터 특히 1970년대에 들어서서가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오늘날의 경제학과의 모습이 정착된 것은 1970년에 들어서서의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셈이다』(서울대학교40년사, 745페이지)

그는 또, 초기 경제학과에 재직한 대표적인 교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국제경제학의 李相球교수, 경제정책의 劉鎭舜교수, 재정학의 李海東교수, 경제원론·한국경제론의 高承濟교수, 경제학사·경제사의 崔文煥교수, 경제계획론·후진국경제론의 朴喜範교수등을 들 수 있다.

李相球교수는 초기부터 1964년까지, 劉교수·李海東교수는 초기부터 1961년까지, 高교수는 1951년부터 1961년까지, 崔교수는 1961년부터 1966년까지 재직했다. 그들은 경제학과를 빛내어주었을 뿐 아니라 일찍부터 대표적인 경제학자로서 우리나라 경제학계에 크게 공헌하였다. 한편 朴교수는 1958년부터 1968년까지 재직했는데 역시 경제학과를 빛내주었고 또 우리나라 경제학계에 공헌한 바 크다』(상계서, 745~746페이지)고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과학대학을 말함에 있어, 우리는 특히 다음의세분 교수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되겠다.

첫째는 李鎭淑교수에 해서이다. 이것은 자연 心理學科 창설과 관련이 되거니와 李鎭淑교수는 1946년 심리학과 창설과 함께 초대 학과장에 취임하였다. 이는 종래 심리학분야가 경성제대 당시는 철학과에 포함되어 있었기에, 그러므로 선생이 심리학과 창설의 의의와 그 기쁨은 한층 큰 것이었다고 할 수 있으리라.

1946년당시 대학 예과학생으로서 직접 李鎭淑교수로부터 「心理學槪論」을 들은바 있고 그후 심리학 전공자로서 師事한 바 있는 鄭良殷교수는 은사의 학풍과 아울러 당시 심리학과의 이모저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해방된 다음해인 1946년 9월 (그당시 학년초가 9월이었다) 국립서울대학이 창설됨과 더불어 京城帝大때와는 달리 心理學科가 철학과에서 분리되어 독립한 학과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명실공히 대학에 심리학과가 창설된 것은 1946년 9월이다. 그리고 새로이 출범한 心理學科의 初代學科長이 바로 李鎭淑선생이었다.

6·25사변으로 전부 없어졌지만 그때만해도 심리학 기초실험을 할 수 있는 실험기구가 충분했다고 기억된다. 거기 모인 전체 교실원은 위가 동그란 실험용의자에 자리잡고 담소하고 茶를 마셨다. 이 모임에서 학과장이신 李鎭淑선생님은 어떤 感激과 興奮에 싸여 있었던 것처럼 생각된다. 평소에는 그다지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었으나 이때는 아주 기분이 흡족하신것 같았다』고 하여 심리학과 창설당시의 情景을 잘 묘사하고 있다.

심리학과 창설이 母校의 개교와 동시였던데 비하여 地理學科가 설치된 것은 1958년의 일이다. 이때 창설에 힘쓰신 분이 石田陸芝修교수(1907~1967)이다.

그의 제자인 朴英漢교수는 은사인 石田의 人品과 학문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말하고 있다. 즉, 『선생님은 고매한 인격과 학문에 대한 깊은 慧眼을 지니셨으며, 성품 또한 溫雅하시었다. 특히 石田 선생님은 우리나라에서 經濟地理學을 개척하신 地理學界의 선구자이시다』라고하면서, 陸선생님은 일본 東京帝國大學 經濟學部를 졸업하시고 동대학 잠사경제연구실에서 助手로 학문의 길에 들어선 후, 1936년부터 延禧專門學校 교수겸 京城帝國大學 予科강사로 학계에 투신하시어 經濟學과 經濟地理學을 강의하시면서 많은 人材를 길러내셨다. 광복이후 本校 商科大學과 고려대학 교수를 거쳐 1955년부터 他界하실 때까지 본교 文理科大學 교수로 계시었다.

이리하여 石田은 특히 경제지리학 중에서도 資源論과 立地論의 체계화에 힘썼으며 人口問題硏究所의 창설은 그의 공적임이 말하여지고 있다. 또한 그의 서적들은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石田文庫」로 보관되어 있다.

위의 두 교수의 요절과 함께 애석하게 여겨지고 있는 교수로는 農石 李海英교수(1925~1979)가 말하여지고 있다. 그러기에 農石의 學德을 기리는 紀念講座가 여러차례 개최되었거니와, 5주기에 조음하여서는 그가 창설하고 초대 소장이기도 하였던 서울대학교 社會科學 硏究所編으로 農石 李海英敎授追念論文集이 「韓國社會의 變動과 發展」(1985)이라는 서명으로 간행되고 있다.

金彩潤교수는 追悼辭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선생은 제자와 후배에게도 엄하고 무서운 교수로, 그리고 동료와 선배에게는 두려운 분으로 통했다. 그릇된 후학에게는 옆에서 듣는 이조차도 민망하리만큼 호된 꾸중을 하였고 동료와 선배에게는 直言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꾸중뒤에는 깊은 애정이 스며 있었고 直言의 이면에는 간곡한 責善의 뜻이 함축되어 있었다』고 하였고, 『진정 선생은 우리시대를 마지막으로 살고 간 不世出의 특출한 스승이라고 할 것이다』라는 말이 추모의 정을 더욱 느끼게 하고 있다.

◇ 崔文煥 교수

◇ 李鎭淑 교수

◇ 陵芝修 교수

◇ 李海英 교수

大學綜合化계획따라 기본학문 계열분류로 나눠
——趙 淳 현副總理가 初代學長, 기틀 마련——
商科대학 解体엔 同門들 거센 反撥로 어려움 겪어

地方支部 탐방

馬山支部 편

내 고향 닐폭바다/
그 파란물 눈에 보이
네/ 몸엔들 잊으리오
/ 그 잔잔한 고향의
바다/ 지금도 그 물
새들 날으리/ 가고파
라 가고파/ 어릴제 갈
이 놀던/ 그 동무들
그리워라/ 어디간들잊
으리오/ 그 뛰놀던 고
향동무/ 오늘은 다무
얼 하는고/ 보고파라
보고파…/.

시조시인이었던 李殷相선생은 자신의 고향 馬山을 이렇게 노래하였다.

鎭海灣 깊숙히 자리잡은 港口도시 마산은 60년대이후 추진된 공업화정책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慶南 유수의 商工業도시로 발전하였다.

특히 지난 56년에 세워진 마산발전소의 건설을 계기로 纖維工業의 발달이 현저하며 市 남동쪽일대에 형성된 수출 자유지역에 각종 기업체가 入住, 가동되면서 남동임해공업지대의 중심도시로 진가를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항만공업도시로서의 기능외에도 마산은 邱馬고속도로의 개통으로 水産 및 農産物의 집산지일뿐아니라 영남지방의 산업거점도시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이에 마산지역내의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 선도적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馬山支部의 회원들의 응집된 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고 있어 마산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馬山支部가 발족된것은 지난 1971년의 그 당시, 鄭在寬교수(작고)를 주축으로 1백여명의 在馬山동문들이 모여 동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돕는 협조체제를 이룩하자는 취지아래 창립되었다.

초대회장에는 安在鎬(순안산부인과원장)동문이 맡아 相扶相助의 창립의지를 되살리며 매년 동문들의 체력증진 및 친목도모를 위해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공백기를 겪게 되었다.

그러나 동문들의 끈끈한 정은 끊기지 않고 다시 이어져 2대 회장 金炯甲(신흥여객대표) 동문을 중심으로 支部 再建에 성공, 동문 상호간의 결속을 다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게 되었다.

3대회장 朴然洙(구민치과원장) 동문, 4대회장 洪承丸(前 경남은행장) 동문, 5대회장 權永煥(재건약국장) 동문이 맡아 單大別 회원명부 수집과 함께 理事會를중심으로한 사업전개에 초점을 맞추고 支部활성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지고 있다.

매월 1일에 열리는 정례 이사회에는 각 단대별로 구성된 27명의 이사들이 대부분 참석한 가운데 지부운영에 힘써왔다.

현재는 6대회장으로 申尙澈(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장) 동문이 맡아 單大別 회원명부 수집과 함께 理事會를중심으로한 사업전개에 초점을 맞추고 支部활성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지고 있다.

◇安在鎬 고문

◇姜來烈 부회장

◇尹德重 총무

詩文學 전공의 慶南大교수
―申 尙 澈 支部長

『여러차례 사양을했었습니다만 支部長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건실한 지부로 이끌어 나가려니 무거운 책임감이앞설 뿐입니다.』

지난해에 열린 馬山支部 정기총회때 2년 임기의 새회장에 선임된 申尙澈지부장. 1936년생으로 올해 54세인 申지부장은 오래도록 교육계에 몸담아온 전형적인 教育者이다.

본래 고향은 鎭海였으나 1959년 母校師大를 졸업한후 馬山에 정착하였다.

그후 慶南大學校에재직하면서 학생처장·출판국장겸 학보사주간·도서관장·사범대학장을 거쳐 현재는 교육대학원장직을 맡고 있다.

대학시절 詩文學을 전공하였으며 지금은 수필가로도 활약, 이미 6권의 저서를 발간하기도.

이때문에 경남문인협회장·한글학회 마산지회장·한국시문학회 부회장·한국수필가협회이사등 다양한 직책을수행하고 있다.

『올해초 支部長에취임하면서 회원 여러분께 약속드린게 있습니다. 먼저 신속히 회원들의 소재를 파악하여 연락망을 조성할것과 친목도모및 회원들의 소식을 널리 알리고자 연 2회 會報를 발간할 것』등이라며

『이를 위해 그 첫번째 작업으로 단대별회원명부를 수집하고 있으며 8월중에는 제1호 회보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급히 서두르기 보다는 경상도사람들 특유의 은근과 끈기를 바탕으로 서서히 支部의 조직을 강화해 나갈것임을 재삼 강조하는申 지부장은 교육자다운온화한 인품으로 지부발전에 힘쓰고 있다.

젊은시절에는 경남교직원체육대회에서 탁구개인전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던 스포츠맨으로 육상도 즐겨한다.

부인 徐英子(52)씨와의 사이에 1남3녀를 두고 있다.

71년 발족, 4백여 동문 團合을 과시
―인접 昌原과 통합모색, 名簿발간도 서둘러
會員子女위한 奬學基金마련에 總力

과원장)、金炯甲(신흥여객대표)、朴然洙(구민치과원장)、權永煥(재건약국장)▲회장:申尙澈(경남대학교교육대학원장)▲부회장:姜來烈(강안과원장)、金益河(변호사)、李進(경남대교수)、金漢炅(김한경치과원장)▲총무:尹德重(경남대교수)▲감사:金炯英(경남은행전무)▲이사:金鉉石、李在旭(탠디모비리통신㈜사장)、尹炳哲、金鍾鶴(경남체육회 사무국장)、金炯馹(동아일보지사장)、李景宰(동진산업㈜)、權致寬(경남신문이사)、金成根(공동탁주대표)、辛容必(화생화학관장)、李根榮(동일목재사장)、安鍾武(회락약국장)、河文鎬(미도약국장)、田貞子(창원대교수)、金永德(서울산부인과원장)、金泰河(김태하치과원장)、黃慶淳(황치과원장) 등이다.

이러한 임원진들을 주축으로 마산지부의 회원들은 그 지역사회의 엘리트들로써 기대에어긋나지 않은 활동을 함으로써 최고 수준의 지부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尹德重총무는『현재 마산에 거주하고 있는 동문의 수가 약 3~4백명에 달할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히고『인접한 창원시와는 비록 행정구역상 분리되어 있기는 하지만 워낙 밀접한 관계여서 멀지않아 통합된 동창회를 구성하게 될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부회원수도 지금보다 2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실공히 경남지역을 대표하는 지부로 성장할것』이라며 자랑이 대단하다.

따라서 마산지부는 빠른 시일내에 전체 회원들의 명단을 취합하여 전동문이 참여하는 지부가 되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일치하고 이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支部의 재정은 부담없는 동창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 특별히 기금적립액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임원진들이 솔선수범 해주고 있어 단계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회원 모두의 단합된 힘을 기둥으로 해서 마산지부가 펼쳐나갈 사업계획도 매우 다채롭다.

먼저 각기 처한 위치에서 서울대인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지역사회에 봉사할 것이며 동문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우수 인재들의 모교진학 추진등이 바로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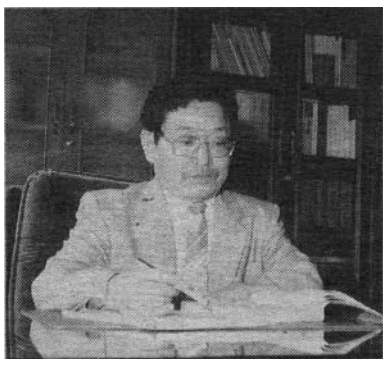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勞使紛糾와 관련, 국제경쟁력 약화로 인한 수출부진등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어려움이 어느때보다도 큰때에 마산지역이 맡아야 할 책임도 커가고 있어 각 분야의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在馬山동문들의 활약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마산지부회원들이 친목도모뿐아니라 더 나아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빼어난 능력을 펼쳐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內外의 눈

초대석 ②

經濟정책 問題點 많다



林 鍾 哲

〈56년 商大卒·母校 社會科學大學 學長〉

政府의 安定化시책 10년전 前轍을 답습

——최근 경제동향 安定恐慌 몰고올 위험성 짙어

物價·失業·貿易赤字로 衣食생활 위협

分配구조 改善, 産業구조 개편이 至上課題

——자칫 失敗하면 中進문턱서 南美 경우로 전락

국민적 잠재력 향후 10년간 高度成長가능

科·同期會 명부를 보내 주시면 名簿편찬에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 발행된 동창회 산하 各科·同期會및 科모임 名單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낼곳 : (121-040)麻浦區 桃花洞18-2 서울大同窓會 ◇연락처 : 名簿編纂室(702-2233~5, 717-8536~7)

▲陳允龜(43년 師大卒·江原道敎育委員)=지내온교직생활중그때그때 메모를 했던 글들을 모아 최근 「敎職40년(下)」 陳동문은 「敎職40年」 上권을 82년에 발간한 바 있다.

▲李容珏(45년 醫大卒·本會理事)=최근 여의도성모병원을 그만두고 仁荷大醫務副總長·仁荷中央醫療院長·仁荷病院長에 취임.

▲池憲澤(47년 齒大卒·大韓齒科協會고문·本會理事)=최근 서울에서 열린 제14차 아시아·태평양치과회의 대표자회의에서 亞·太치과연맹(APDF) 회장으로 선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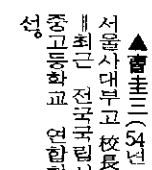
▲李應百(49년 師大卒·漢陽大 敎授·本報編輯委員)=한국어교육연구회 회장으로서 6월2일 師大동창회관에서 제191차 국어교육연구발표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

▲崔鍾浣(50년 工大卒·工大同窓會長)=工業標準協會長으로서 최근 蘇聯과 헝가리를 방문, QC및 투자상담을 마치고 귀국.

▲白文基(50년 美大卒·彫刻家·冠岳會監事)=최근 起亞産業 연구소에 「雄飛」라는 작품과, 群山市民文化會館 현관에 「海潮音」이라는 작품을 제막.

▲韓佑植(50년 美大卒·在美畵家)=在美초기작부터 근작이 망라된 1백60여점의 작품으로 지난 6월1일부터 30일까지 果川 국립현대미술관과 珍화랑 본점·잠실분점(10일까지)에서 동시에 귀국전을 가짐.

▲丁奇洙(51년 文理大卒·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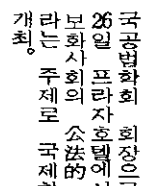
▲曺圭三(54년 師大卒·서울사대부고 校長·本會理事)=최근 전국국립사범대학부속중고등학교 연합회 회장에 피선.

▲朴基弘(54년 醫大卒·朴産婦人科醫院長)=6월5일부터 8일까지 프랑스에서 개최된 제2차 世界婦人科內視鏡學會에 참석한후 西獨 키엘대학에서 婦人科內視鏡手術學을, 이태리 미라노대학에서 細胞遺傳學을 3일간씩 연수하고 12일 귀국.

▲朴贊玉(55년 師大卒·傳統文化協議會名譽理事)=「時調生活」誌에서 제정한 제1회신인문학상 시조부문에 당선되어 7월6일 호텔신라에서 시상식을 가질 예정.

▲李洸鎬(55년 醫大卒·母校醫大學長·本會理事)=최근 체육과학연구원의 초대이사장에 선임됐다.

▲金哲洙(56년 法大卒·母校法大 敎授·本報編輯委員)=한국공법학회 회장으로서 5월26일 프라자호텔에서 「미래정보화사회의 公法的 대응」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



▲李永煥(56년 경민외국어고등학교 校長에 취임.

▲黃英奎(56년 法大卒·本會理事)=지난 5월15일 太平洋化學社長에서 그룹 부회장겸 경영관리본부 사장에 선임.

▲愼鎬來(56년 師大卒·本會理事)=최근 馬山東中學校長에서 鎭海高等學校長으로 전임.

▲金顯瑞(57년 商大卒)=최근 韓國商業銀行 청계지점장에서 본점 業務改善部長으로 전보.

▲孫尙模(57년 商大卒·本會理事)=최근 東部그룹의 東部製鋼·東部石油化學·東部電子通信·嶺南化學의 제조부문대표이사 會長에 취임.

▲李滿基(57년 商大卒)=최근 漢陽大교수에서 한양중권사장으로 취임했다.

▲黃哲益(57년 音大卒)=크리스챤 작곡가들의모임인 作樂會 회장으로서 작악회 작품발표회를 5월30일(연세대학교 백주년 콘서트홀), 31일(문예회관 대극장)양일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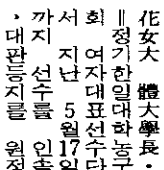
▲李忠熙(58년 理大卒·韓國標準硏究所長·本會理事)=지난 5월29일부터 6월2일까지 소련에서 개최된 첨단소재 기술개발 워크샵에 참석 코 귀국.

▲李相赫(58년 法大卒·辯護士·本會理事)=최근 사형제도의 폐지를 위해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死刑폐지운동협의회」 결성대회를 갖고 회장에 피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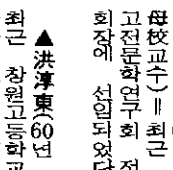
動 靜

이 欄은 同門들의 동정을 全회원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職場을 옮기셨거나 職位의 변동을 비롯, 개인의 활동 및 업적에 이르기까지 보다 상세하게 알리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記事를 보내 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용 있으시길 바랍니다. 電話로 통보해 주셔도 됩니다.
電話 : (702) 2233~5
(717) 8536~7

▲柳聖圭(59년 師大卒·서울한의원장·本會理事)=時調전문지인 계간「時調生活」을 창간하고 發行人으로서 오는 7월6일 호텔신라에서 祝賀式을 가질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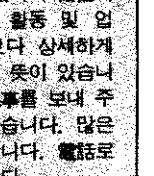


▲尹南植(59년 師大卒·梨花女大 體大學長·本會理事)=정기한일대학농구교환경기대회 여자대표선수단 단장으로서 지난 5월17일부터 23일까지 선수들 인솔하여 동경·대판등지를 원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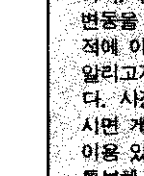


▲金炳國(60년 文理大卒·母校교수)=최근 열린 한국고전문학연구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선임되었다.

▲洪淳東(60년 師大卒)=최근 창원고등학교에서 창원중학교로 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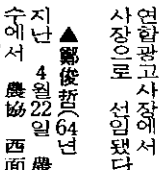


▲許浦(60년 商大卒·詩人)=지난 5월26일 한국투자금융 전부에서 韓國投資證券 사장으로 영전.



▲玄林鍾(60년 商大卒)=최근 信用保證基金 중부지점으로 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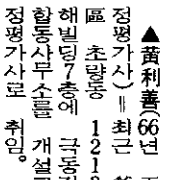
▲金鎭武(61년 法大卒·法大百年史常任編纂委員)=최근 산업半導體 상임고문에 취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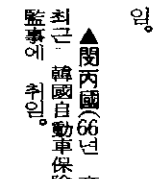
▲鄭俊哲(64년 商大卒)=지난 4월22일 農協大學 교수에서 農協 西面支店長으로 전임.

▲金光男(65년 齒大卒·모교齒大 敎授)=최근 교무담당 학장보에 임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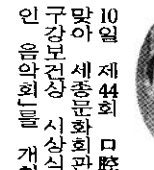
▲吳明(66년 工大卒·前체신부장관·本會理事)=최근 모교 교인 美뉴욕주립스토니부룩大에서 무임소교수(통신석학교수)로 임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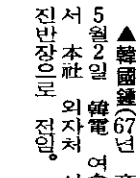
▲黃利善(66년 工大卒·감정평가사)=최근 釜山市 東區 초량동 1213-115청해빌딩7층에 극동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를 개설코 대표감정평가사로 취임.



▲安澤秀(66년 文理大卒)=최근 保社部 공보관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 상임이사로 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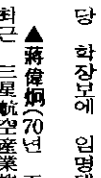


▲閔丙國(66년 商大卒)=최근 韓國自動車保險㈜ 常任監事에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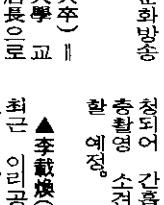


▲金顯曇(66년 齒大卒·서울시치과의사회장·本會理事)=6월10일 제44회 口腔보건주간을 맞아 세종문화회관대강당에서 구강보건상 시상식및 「89치과인 음악회」를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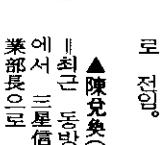
▲鄭昌鉉(67년 師大卒·韓國敎員大學 敎授)=5월4일 同大學 학생처장에 임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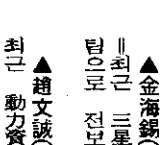
▲韓國鍾(67년 商大卒)=5월2일 韓電 여수지점장에서 本社 외자처 신규사업부 진반장으로 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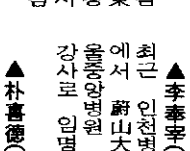
▲李載煥(75년 師大卒)=최근 이리공고에서 남원농고로 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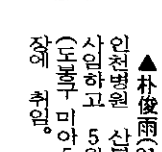
▲陳兌奐(77년 社會大卒)=최근 동방생명보험 감사실에서 三星信用카드㈜ 特殊營業部長으로 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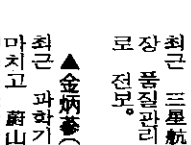
▲曺昱相(78년 自然大卒)=최근 ㈜SKC 기술관리부로 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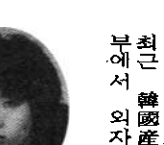
▲金海錫(78년 經營大卒)=최근 三星重工業 경영개선팀으로 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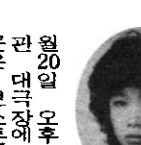
▲趙文誠(79년 師大卒)=최근 勤力資源部 전력운영과에서 석탄유통과로 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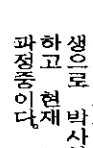
▲李奉宰(79년 醫大卒)=최근 인천병원 이비인후과장에서 蔚山大學校 醫大및 서울중앙병원 이비인후과 전임강사로 임명됨.



▲朴喜德(81년 音大卒)=지난 6월19일 오후7시 수원 실로암 선교다실에서 복음찬송가 작곡발표회를 가짐.



▲朴俊雨(81년 醫大卒)=인천병원 산부인과 과장직을 사임하고 5월부터 새한병원(도봉구 미아5동) 산부인과장에 취임.



▲黃喆弘(81년 醫大卒)=최근 경기도 양평에 황철홍의원을 개원(772·7755).

▲鄭昌健(83년 農大卒)=최근 三星航空産業㈜ 제2공장 품질관리부 엔진부품팀으로 전보.

▲金炳參(83년 師大卒)=최근 과학기술원에서 학위를 마치고 蔚山大學校 自然大生物學科長(조교수)으로 부임.

▲丁海根(84년 師大卒)=최근 韓國産業銀行 국제영업부에서 외자자금실로 전보.

▲전소영(84년 音大卒·첼리스트)=귀국 첼로독주회를 6월20일 오후7시30분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가졌다. 전동문은 보스톤대학에서 전장학생으로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현재 Artist Diploma 과정중이다.

▲高在丞(67년 齒大卒·모교齒大 敎授)=최근 學生담당 학장보에 임명됐다.

▲蔣偉炯(70년 工大卒)=최근 三星航空産業㈜ 제1공청되어 간흡충증의 전산화단층촬영 소견에 대한 특강을 할 예정.

▲鄭昌鉉(67년 師大卒·韓國敎員大學 敎授)=5월4일 同大學 학생처장에 임명되었다.

▲韓國鍾(67년 商大卒)=5월2일 韓電 여수지점장에서 本社 외자처 신규사업부 진반장으로 전임.

▲金顯曇(66년 齒大卒·서울시치과의사회장·本會理事)=6월10일 제44회 口腔보건주간을 맞아 세종문화회관대강당에서 구강보건상 시상식및 「89치과인 음악회」를 개최.

▲閔丙國(66년 商大卒)=최근 韓國自動車保險㈜ 常任監事에 취임.

▲安澤秀(66년 文理大卒)=최근 保社部 공보관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 상임이사로 전임.

▲黃利善(66년 工大卒·감정평가사)=최근 釜山市 東區 초량동 1213-115청해빌딩7층에 극동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를 개설코 대표감정평가사로 취임.

▲吳明(66년 工大卒·前체신부장관·本會理事)=최근 모교 교인 美뉴욕주립스토니부룩大에서 무임소교수(통신석학교수)로 임명됐다.

▲尹南植(59년 師大卒·梨花女大 體大學長·本會理事)=정기한일대학농구교환경기대회 여자대표선수단 단장으로서 지난 5월17일부터 23일까지 선수들 인솔하여 동경·대판등지를 원정함.

▲柳聖圭(59년 師大卒·서울한의원장·本會理事)=時調전문지인 계간「時調生活」을 창간하고 發行人으로서 오는 7월6일 호텔신라에서 祝賀式을 가질 예정.

▲李載煥(75년 師大卒)=최근 이리공고에서 남원농고로 전임.

▲陳兌奐(77년 社會大卒)=최근 동방생명보험 감사실에서 三星信用카드㈜ 特殊營業部長으로 전임.

▲曺昱相(78년 自然大卒)=최근 ㈜SKC 기술관리부로 전보.

▲金海錫(78년 經營大卒)=최근 三星重工業 경영개선팀으로 전보.

▲趙文誠(79년 師大卒)=최근 勤力資源部 전력운영과에서 석탄유통과로 전보.

▲李奉宰(79년 醫大卒)=최근 인천병원 이비인후과장에서 蔚山大學校 醫大및 서울중앙병원 이비인후과 전임강사로 임명됨.

▲朴喜德(81년 音大卒)=지난 6월19일 오후7시 수원 실로암 선교다실에서 복음찬송가 작곡발표회를 가짐.

▲朴俊雨(81년 醫大卒)=인천병원 산부인과 과장직을 사임하고 5월부터 새한병원(도봉구 미아5동) 산부인과장에 취임.

▲黃喆弘(81년 醫大卒)=최근 경기도 양평에 황철홍의원을 개원(772·7755).

▲鄭昌健(83년 農大卒)=최근 三星航空産業㈜ 제2공장 품질관리부 엔진부품팀으로 전보.

▲金炳參(83년 師大卒)=최근 과학기술원에서 학위를 마치고 蔚山大學校 自然大生物學科長(조교수)으로 부임.

▲丁海根(84년 師大卒)=최근 韓國産業銀行 국제영업부에서 외자자금실로 전보.

▲전소영(84년 音大卒·첼리스트)=귀국 첼로독주회를 6월20일 오후7시30분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가졌다. 전동문은 보스톤대학에서 전장학생으로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현재 Artist Diploma 과정중이다.

同門을 찾아서

齒大同窓會 新任會長 李春根 박사

母校에 40년 奉職한 齒科界 元老

"後輩 勉學支援에 온힘 쏟을 터"

『뜻밖에 重任을 맡고보니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기왕 선임을 해주셨으니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위한 마지막 봉사라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5월26일 열린 齒大同窓會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새회장에 추대된 李春根동문(모교 名譽敎授·李春根치과의원장)의 취임 一聲이다.

그는 덧붙여 우리나라의 齒科界를 선도하고 있는 齒大 동문들의 친목도모와 自矜心을 더욱 북돋우고 어려운 후배재학생의 면학을 지원하는데 동창회 사업의 중점을 두겠다고 밝힌다.

1918년 平北태생인 李동문은 41년 京城齒科醫學專門學校를 졸업하고 당시 한국인으로서는 唯一하게 京城齒科醫學專門學校助敎授에 임명된 수재. 해방 후에는 서울大 齒大助敎授에 취임하여 83년 2월 정년퇴직할때까지 40여년간을 모교에 몸담아 왔다. 그가 재임중 맡은 보직으로는 齒大附屬病院長을 비롯, 齒大學長, 齒學硏究所長 등 중책을 두루 거치며 齒大 발전에 큰기여를 했다.

그는 특히 學長재임중 齒大 신입생 모집에서 제2지망을 없앰으로써 입학생의 質을 단시일내에 상위권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제2지망제도를 없애기전 齒大의 수준은 單大의 중간쯤도였다고 한다.

李동문은 모교 재임중 52년에 醫學博士(서울大)학위를 받고, 58년에는 美앨라배마大를 수학했다.

한편으로는 口腔外科學會長, 齒醫學會長을 역임하며 우리나라의 醫學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여 國民훈장 枾柏章과 牡丹章을 받기도 했다.

『동창회의 제1차적 목표는 동문상호간의 친목도모지만, 그에 못지않게 모교의 발전, 후배들의 勉學을 지원하는 일도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齒大同窓會는 어느 정도의 기틀은 마련됐다고 하나 동문들의 母校에 대한 關心度는 아직 미약한 실정입니다. 현재 齒大동창회원수는 4천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會費를 내는 사람은 절반도 안되는 것을 보아도 잘 알수 있습니다.』

李동문은 會費를 낸다는 것이 모교와 동창회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되는게 아니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關心」은 결코 일방적인 강요만으로되는 것은 아닌 것. 동창회를 운영함에 있어 한결같은 애로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다.

李동문은 이를 위해 앞으로 좋은 계절을 택해 「홈커밍데이」 형식의 동문 모임을 마련해 보겠으며, 뉴스레타도 빠짐없이 발간하여 동문상호간의 연계의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힌다.

그는 또 支部組織을 재점검할 뜻을 비치면서 조만간 支部를 순례하면서 실정을 파악한후,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지원하고 休眠지부가 있으면 깨워서 모교지원에 일조하도록 열심히 독려하겠다고 의욕을 보인다.

독실한 기독교신자로서 基督齒科醫師會長을 역임했고 지금도 4시40분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집근처 교회에서 새벽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하루일과를 시작한다.

정년퇴임후에 開業한 치과의원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손을 떼지 않을 생각이며, 매월마지막 주일에 서울근교를 찾아다니며 무료진료를 해주는 것을 큰 보람으로 여기고 있다.

건강을 위해 골프와 테니스를 즐기고 있으며, 가족으로는 부인 白淑여사와의 사이에 3男2女를 두었는데, 아들(健柱·한림대의대부교수)과 며느리가 같은 치과의사여서 더욱 마음이 든든하다고 대견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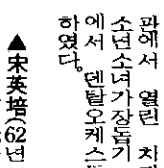
▲金 建(52년 文理大卒·韓國銀行총재·本會理事)‖최근 서울外信記者클럽 초청으로 프레스센터18층에서 최근의 금융경제현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갖고 토론.

▲柳致松(53년 商大卒·前民黨幕총재·本會理事)‖옛 民韓黨인사들의 모임인 民韓구락부를 民韓동우회로 개칭, 최근 여의도 소재 태양빌딩801호(783-6113)에 연락사무소를 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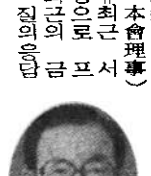
▲趙澤根(58년 法大卒)‖6월1일 光州生命保(株) 常務에서 專務로 승진.

▲吳顯燮(58년 師大卒)‖지난 5월15일 第一投資諮問㈜社長에 취임.

▲李華泰(58년 商大卒·本會理事)‖亞細亞投資諮問 전무이사에서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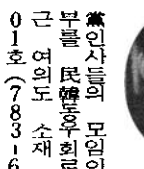
▲韓鎬徹(56년 醫大卒·母校병원장·本會理事)‖최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흡기질환에 관한 국제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회의에 참석코 귀국.



▲朴禹東(57년 法大卒·大法官·本會理事)‖5월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국변호사협회 제정 제21회 「한국법률문화상」을 수상.

▲張炳圭(57년 法大卒·前文敎次官·本會理事)‖5월1일 발족한 韓國奬學會 초대 이사장에 임명됐다.

▲朴鍾遠(57년 師大卒)‖5월16일 경기도교위 中等敎育課長에서 學務局長으로 승진.



▲鄭鳳九(59년 農大卒·忠北大 敎授)‖최근 韓國均學會 부회장으로 선임되었다.

▲金宗鎬(59년 法大卒·國會議員·本會理事)‖한-벨기에 의원친선협회장으로

▲崔翔默(61년 齒大卒·母校齒大교수)‖6월1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치과인음악회겸 소년소녀가장돕기 자선음악회에서 멘탈오케스트라를 지휘하였다.

▲朴貞允(62년 師大卒)‖최근 김포 하성중학교에서 양평군 지평중학교 교감으로 전임.

▲宋英培(62년 工大卒)‖최근 東亞絹織株式會社 代表理事 社長에 취임.

▲金榮洙(64년 文理大卒·本會理事)‖최근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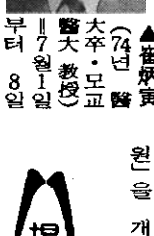
(61년 大卒·母校齒大 敎授)‖최근 齒 학연구소장으로 발령. 大부설 치 장 광화사업부장으로 전보.

▲朴呈根(71년 工大卒)‖최근 대림산업㈜ 호남에틸렌 제2공장 공무차장으로 전임.

▲申忠燮(72년 工大卒)‖한국감정원을 퇴직하고 지난 6월3일 새한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를 개설.

▲李相慶(72년 工大卒)‖최근 韓國纖維産業聯合會 국제조사부 차장으로 전임.

▲秋岩鈴(72년 師大卒)‖최근 한국중권대체결재㈜ 부산지점 次長으로 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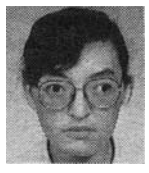
▲崔炳寅(74년 醫大卒·모교醫大 敎授)‖7월1일부터 8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17차 세계방사선의학회 학술대회에 특별연사로 초

▲韓惠淑(72년 醫大卒)‖최근 청량고등학교에서 서울과학고등학교로 전보.

▲吳順煥(84년 環境大學院卒)‖최근 서울특별시청 공원과로 전임.

▲朴숙련(85년 音大卒·피아니스트·현재 세인트루이스 콘서바토리 Artist Certificate 과정중)‖6월24일 오후7시 예술의전당에서 피아노리사이틀을 가졌다.

▲申晶媛(85년 音大卒)‖6월24일 오후7시30분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첼로독주회를 가짐.



▲吳木薰(88년 齒大卒)‖지난 5월27일 송파구 송파동에 위치한 藝빌딩에 「오목훈치과의원」을 개원.

掲示板

慶弔事

▲洪麗信(54년 醫大卒·母校醫大敎授)‖次女 綾延양이 6월24일 오전11시 海軍會館에서 화촉.

▲金善陽(57년 師大卒·仁荷大 敎授·本會理事)‖次女 珍聖양이 6월23일 오후3시 海軍會館에서 화촉.

▲金尙敏(58년 醫大卒·慶熙大 敎授)‖長男 忠洛군이 6월24일 오전11시 海軍會館에서 화촉.

結婚

同窓會館 冠岳홀

▲김용현(82년 農大卒·大學院재학중)군·안대영(87년 師大卒·방이중학교)양‖7월1일 오후2시.

▲정기로(86년 工大卒·한국전자통신연구소)군·모소희양‖7월2일 오후1시.

▲김시진(88년 工大卒·大學院재학중)군·박보경양‖7월2일 오후2시30분.

▲이창하(88년 醫大卒)군·박미영양‖7월9일 오후1시.

▲조동우(85년 經營大卒·인천시청)군·심숙경양‖7월17일 오후1시30분.

名譽敎授 칼럼

傳統의 繼承

金 熙 春
〈37년 工大卒〉

우리나라 傳統建築을 논하기 전에 老子思想을 잠깐 알아보기로 하겠다.

老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說이 있다. 그가 實在人物인지조차 의심스럽다고 하는 學者도 있다. 그러나 대체로 中國 楚나라시대(약 2천5백년전) 苦縣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고있다.

그가 주장하는 자연과 調和를 이루는 속에서 安住를 찾고자 하는 태도는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는 永遠不變의 理致를 담고 있는 道에 의하여 모든 것이 지배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고 착각하고 永遠과 全體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人爲的인 政治와 戰爭이 그중 가장 큰 잘못이라고 老子는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建築과 관련이 깊은 그의 自然과 空間 개념을 살펴보면 그가 말하는 道는 宇宙의 근원이며 始源이다. 또한 道는 無形의 실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절대다. 따라서 시간과 공간의 制約을 받는 현상계의 하나인 사람이 그 실체를 알 수 없다. 이렇게 인식할 수 없는 無形의 道에서 萬物이 저마다 스스로 있는 현상계로 나타나고 있으니 현상계의 모습을 가지고 볼때 道는 바로 스스로 있는 것, 즉 自然이라 하겠다.

老子의 또하나의 기본적 理念은 空間槪念이라고 볼수 있다. 모든 것은 有形的인 完了點에 일단 도달하게 되면 성장의 潛在力이 고갈하게 된다. 그러나 無形的인 요소는 더욱 발전하기 위하여 거의 제약없는 變化可能性을 주는 것임을 老子는 일찍하고 있다. 이것의 一般的인 개념은 物理的 공간의 構成要素들에 의하여 잘 표현되어 있다.

집들을 형성하여 그 비어있는 공간에서 有用性을 찾게 되고 壁과 지붕으로 房을 구성하고 門과 窓을 뚫게 되면 내부공간의 有用性과 외부공간과의 연계성을 찾게 된다.

建築과 연관되어 있는 이 귀절은 지나쳐 보기 쉽게 되어있는 無形의 것이 가장 有用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관례적으로 무시되어 있는 공간(void : 비어있는 것)이 실제로는 보다 더 중요하다. 그 이유는 공간이 固形體(solid : 차있는 것)로 언제나 채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친밀성을 주게 된다. 결과적으로 시간을 空間構成의 주요소로 생각할 때 建築은 시간속에서 인간의 삶 및 경험을 공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老子思想은 우리나라 傳統建築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어 擇地 建物配置등 자연과의 조화를 기본목표로 하고 있다 어떤 땅을 地라고 생각했으며 사람도 自然의 일부로 간주하여 주변의 山勢가 뛰어나고 아름다우면 예절바르고 준수한 인물들이 나온다고 믿었던 것이다.

한편으로 傳統建築에서는 채로 이루어지는 內部空間 구성도 중요하지만 채와 채사이에 생기는 外部空間도 중요시하였고 이 外部空間도 잘 이용했다.

여기서 우리는 建築思潮의 변화에 대하여 관찰해 본다.

현재 西歐는 20세기 말적 경향이라고 보이는 Late Modernism이니 Post Modernism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이것은 建築의 기능을 위주로 하는 合目的적 建築을 지향하는 소위 Early Modernism 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시도로 보인다. 이러한 새로운 ism이 주장하는 것은 기능이라고 하는 코드 하나만으로는 건축의 예술적 가치가 희박하게 되므로 作家의 主觀에 의한 또다른 코드를 첨가함으로써 건축이 생명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여하튼 구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인 것만은 틀림없다고 보여진다.

현재 우리 사회는 급속도의 경제성장과 國際化 現代化 民主化등의 작용으로 快樂的이고 소비지향적인 생활풍조가 높아가고 있다. 이러한 결과 前記한 西歐의 世紀末的 운동인 Post Modernism 적인 요소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형편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西歐의 이러한 建築思潮의 변천은 그들 나름대로의 확고한 뿌리 밑에서 발생하고 있어 문화발전의 역사적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보겠다. 따라서 이것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사는 歡呼聲이나 모방이 아니라 비판적인 感受性을 가지고 우리의 想像力과 思考方式을 풍부히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그리하여 우리의 것을 찾아 그 眞理와 아름다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고 진정한 가치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즉 우리의 삶에 뿌리를 둔 의식의 총체적 표현이 되도록 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건전하게 이끌어 가는데 그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이로써 우리의 리의 傳統을 定立하고 未來에 이어지는 작업으로써 좋은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특히 여기에는 온 국민이 화합하고 건전한 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각자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민주적이고 희망찬 정치 이념이 앞서야 한다.

지금 우리는 모두가 이러한 때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님을 좋아한다

韓 炯 周
〈56년 醫大卒 · 韓醫院長〉

우리나라 사람들은 님이라는 말에 익숙해있다. 님은 사모하는 사람에게 흔히 쓰이는 우리나라 고유의 고운말인 동시에, 남의 이름이나 어떠한 명사 밑에 붙여 존경의 뜻을 나타내는 듣기에도 부드러운 아름다운 말이라 할 수 있다.

우리들은 일상생활에서 님이라는 말을 인색하지 않게 적절하 사용함으로써 對話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가꾸게 된다.

아버님, 어머님, 누님, 형님, 심지어 우님이란 말도 들릴 때가 있다.

선생님, 교수님, 선배님에서 님자를 빼면 선생, 교수, 선배가 되는데, 이렇게 존칭도 없이 부를 수 있는 경우란, 상대가 허물없는 동료이거나 아니면 후배인 경우가 되겠다.

회장님, 사장님, 총무님은 물론이고 장관님, 총재님, 과장님, 계장님도 님의 호칭이 잘 어울린다.

님자는 심지어 밤하늘에 홀로 떠서 세상을 쓰다듬다시피 은은히 비치는 밝은 달을 보고 달님이라 하여도 어감이 어색하지 않고, 동산에 떠오르는 해를 보고 햇님이라고 불러도 저항을 느끼지 않는다.

나는 수년 전부터 편지 겉 봉투에 사람 이름을 쓰면서 아무개 귀하 대신 아무개 님으로 쓰게 되었다. 귀하라는 말도 사용해서 나쁠 것은 없겠으나, 어딘지 어감이 딱딱하고 친근감이 없어서 관례적이고 사무적인 편지에만 국한해서 사용하게 되었다.

과거 한 때엔 氏라는 말도 성이나 이름밑에 붙여 존대하는 뜻으로 제법 사용되던 시기도 있었으나 근래에는 존대어로는 쓰이지 않고 손아래 사람에게 쓰이는 경향이 있다. 뚜렷한 학위나 직위 또는 존칭을 가진 사람에게 함부로 사용할 말이 아닌 것이다.

사람들이 타인에게 책이나 물건 따위를 선물할 때 상대방의 이름 아래에 어떠한 존칭을 사용할 것인지 망설여질 때가 있다. 그럴 때 나는 남녀노소를 불분하고 님이라는 글자를 서슴 없이 사용한다. 님 자에는 나의 따뜻한 정이 담뿍 그것도 가식 없이 실려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또, 나는 일상생활에서 상대방의 직함과 동시에 님이라는 존칭을 붙여서 부르는데 인색치 않는다. 그런데서 대화속에 마음의 평온은 거치른 인간성이 거슬리고, 머리의 회전이 둔한 사람으로 밖에 인식이 가지 않아서 곧 혐오감이 생긴다. 정신의학적으로 보아도 未熟反應의 환자로 취급할 사람이다. 속된 말로 덜된 사람이라 하겠다. 지능은 비교적 발달되었으나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情動이 제대로 순화되지않아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낄것인지도 모르고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이 그럴 수 있다. 특히 노인에게서 이와 같은 현상이 두드러 질 때에는 노쇠현상으로 뇌의 구조가 경화 쇠퇴된 증거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남을 위하고 남에게 잘 보인다는 사실은, 나의 마음에 평온을 가져오고 나를 위하는 길일 수 있다.

나를 위해서도 남을 도와 주고, 남이 잘한 일에는 찬사를 아끼지 말고, 더구나 남이 가지고 있거나 남을 수 없는 명예로운 직함이나 존칭을 사용하는데 결코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고 나는 마음 속에 다지고 있다.

나는 님을 사랑하고, 님자를 좋아한다.

年會費 내주신분

(理事 : 3월6일~3월29일까지
會員 : 3월6일~3월29일까지)

※ 人名밑의 괄호안 숫자는 각 동문들의 卒業年度임.

会長団

▲會長 崔主鎬 1백만원
▲副會長 李聖秀 50만원
▲副會長 金道昶 50만원
▲副會長 金相廣 50만원
▲副會長 朴容晟 50만원
▲副會長 金善弘 50만원
▲副會長 李洙彬 50만원
▲副會長 趙南煜 50만원
▲副會長 張翼龍 50만원
▲副會長 李埈鎔 50만원
▲副會長 金在淳 50만원
▲副會長 李爽熙 50만원
▲副會長 李台燮 50만원
▲副會長 白樂皖 50만원
▲副會長 姜信浩 50만원
▲副會長 具平會 50만원

常任理事

▲行政大學院 會長 兪尙根 10만원
▲新聞大學院 會長 李根洙 10만원
▲大學院 會長 金道昶 20만원
▲獸醫大 會長 全東龍 10만원
▲法大 會長 金性洙 20만원
▲看護學科 會長 楊恩淑 10만원
▲教育大學院 會長 李應鎬 10만원
▲保健大學院 會長 金大奎 10만원
▲工大 會長 崔鍾浣 20만원
▲環境大學院 會長 金秉麟 10만원
▲醫大 會長 姜信浩 20만원
▲師大 會長 朴智洙 20만원
▲文理大 會長 崔永喆 20만원

理事

◇工科大學
▲姜晋求57 삼성반도체통신㈜사장
▲高源鎬48 대한양행대표이사
▲郭三濚55 현대건설㈜부사장
▲金德洙55 장천화학공업사대표
▲金仁植 서울시건설국장
▲金章均50 건축사사무소광장사장
▲金知德70 범한화재㈜한림대리점대표
▲南正鉉61 대우엔지니어링㈜사장
▲盧昌福53 건설저온저장고사장
▲朴亨淳65 현대엔지니어링㈜이사
▲白士益42 동아광업콘설탄트회장
▲白英鶴53 전자통신연구소기술역
▲鮮于學永57 동일전기기업㈜사장
▲宋振煥48 금동석유㈜사장

◇理事
▲申東植52 ㈜한국해사기술이사장
▲申鉉直68 ㈜경맥시스템대표이사
▲申勳澈51 삼성항공㈜사장
▲沈鍾根64 한국타이어제조㈜수출부이사
▲安瑛培55 서울시립대교수
▲李均學63 한국도로공사건설본부장
▲李範鎬58 한국종합개발공사부사장
▲李善一65 동양철관㈜사장
▲張炳夏58 한 인니자원개발㈜전무
▲丁明植55 포항종합제철㈜사장
▲鄭一謨64 국제전자공업㈜사장
▲車千壽52 ㈜대한선박기술부사장
▲崔永祥69 한국전력공사부장
▲許丙九42 동아광업콘설탄트사장

◇農科大學
▲金振儀65 제일사료㈜부회장
▲成宇慶57 동양맥주부사장
▲沈京輔64 스파타케미칼㈜사장
▲尹大燮55 성보실업㈜부회장
▲尹梧燮52 한국농지개발연구소소장
▲鄭址賢57 금정실업㈜사장
▲崔相浩69 농협전문대학교수

◇文理科大學
▲金己燮73 호텔신라상무
▲金相鎬62 ㈜형제윤활유금융소장
▲金容九61 서울대사회대교수
▲金點坤47 경희대정경대교수
▲文熙和60 한국생산성본부장
▲朴龍安61 서울대자연대교수
▲孫東燮54 천성물산㈜사장
▲孫亨珍65 전중앙기상대장
▲梁圭模65 ㈜진양회장
▲尹在天72 성보실업㈜사장
▲李 進64 전국회의원
▲李崇寧33 백제문화개발연구원장
▲李憲祖57 력키금성상사사장
▲全錫洪58 국가보훈처장
▲鄭重煥62 부산강남조선상무

◇美術大學
▲郭元模60 중앙대미대교수
▲李信子55 덕성여대미대교수
▲李鍾學52 인천대교수
▲韓道龍53 홍익대미대교수

◇法科大學
▲郭潤直51 서울대법대교수
▲權炳章57 도서출판지학사사장
▲金連植57 변호사
▲金聖洙72 변호사

▲金榮珍62 내무부차관
▲金正俊60 ㈜불티나종합상사대표
▲盧信永54 전국무총리
▲睦堯相61 전국회의원
▲孫京植61 안국화재해상보험사장
▲宋彦鍾60 전내무부차관
▲申喆均51 국회의원
▲安秉洙49 변호사
▲吳聖植53 인제대학부학장
▲吳成煥57 변호사
▲吳在德57 한국화약그룹사장
▲尹在基68 국회의원
▲李 協71 선룡제지㈜부사장
▲李丙來53 삼양유지사료㈜사장
▲李丙昊57 원주문화방송사장
▲李兼春61 ㈜대한항공전무
▲李泰元61 국민신용카드㈜부장
▲李桓圭60 국회의원
▲鄭大哲67 삼양익스프레스대표
▲鄭恩救64 계성제지사장
▲崔洛賢 재단법인체성회회장
▲許 均76 범제처장
▲玄鴻柱63

▲金道昇65 ㈜한림통상사장
▲金榮柱68 ㈜산화사장
▲金榮浩59 ㈜삼호주택부사장
▲金容燮55 ㈜신양부회장
▲金允基65 ㈜대한항공총무 상무
▲金炫植56 동아출판사사장
▲朴斗根57 경일화학대표이사
▲朴鉄濱56 삼창기업㈜사장
▲朴鍾得41 대한방직㈜부회장
▲朴贊祐62 국민투자금융㈜전무
▲申正澈67 경인산업기기㈜대표
▲沈遠澤43 오류농장㈜회장
▲安秉國66 선청산산업㈜사장
▲柳權浩65 봉산중기㈜사장
▲兪英一57 해태상사㈜사장
▲尹秀柄57 서광무역㈜부사장
▲李大遠65 제일모직㈜부사장
▲李承英61 삼성신용카드㈜부사장
▲李埈得56 선창산업㈜사장
▲李泰承44 전강원은행장
▲李判永67 신보창업투자㈜대표
▲李孝淳67 삼미석재사장
▲田永秀53 금융결제관리원장

▲金周一48 금촌의원장
▲金鎭昨45 김내과의원
▲朴贊雄60 서울의대병리과교수
▲尹德善42 한강성심병원이사장
▲尹正哲65 인천길병원비뇨기과
▲尹鐸求67 원자력병원장
▲李洸鎬65 서울의대학장
▲李吉女57 인천중앙길병원이사장
▲李東泳56 이동기소아과의원장
▲李承徵54 경기후생병원장
▲李鎬珍50 자산의원장
▲李泰實56 이태실내과의원장
▲全東源64 전소아과의원장
▲朱權源43 한국자보상임고문
▲韓元鎬58 한원호내과의원장
▲咸泰英50 인제의대이비인후과
▲許 億61 고려신경외과원장

◇齒科大學
▲南勇旭55 남욱치과의원장
▲羅潤英56 라윤영치과의원장
▲李炳允55 이치과의원장
▲劉英世66 유영세치과의원장
▲李允相65 이윤상치과의원장
▲曺仕鉉61 조사현치과의원장
▲朱洛林61 한일치과의원장

◇大學院
▲金完泰65 명지대이과대교수
▲兪碩鎭49 베드로신경정신과원장

◇經營大學院
▲金煥淳71 우영산업㈜회장
▲馬奎河61 ㈜기아기공사장
▲朴正男74 신한기공건설㈜차장
▲鄭日采69 크리스찬다이제스트사장
▲韓宗憲70 한은올림픽사업실장

◇敎育大學院
▲金炳斗65 춘천교육대학학장

◇保健大學院
▲申碩釪67 보사부보건교육과장
▲李喆玉74 인천길병원원장
▲鄭蓮江63 중앙대의과대교수
▲鄭英彩61 중앙대산업대교수

◇行政大學院
▲金達洙68 한상무역고문
▲申鉉守70 감사원감사위원
▲曺相鎬67 체육부장관
▲崔桂淳65 반포산업㈜사장
▲韓昇洙63 국회의원

◇環境大學院
▲柳命夏72 창건축사대표이사
▲閔鳳基62 천진엔지니어링부사장
▲丁奎榮 신무엔지니어링부회장

◇司法大學院
▲吳 坦70 국회의원

■7월은 「會費完納의 달」

「會費完納의 달」인 지난 6월에는 동문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회비납부실적이 크게 호조를 보였습니다. 동문여러분께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대비 80% 이상의 실적을 기대했었으나 일부 동문들의 미납으로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會費完納의 달」을 7월말까지 1달 더 연장키로 하였습니다. 母校 발전과 동창회의 活性化에 도움을 주시는 뜻으로 여기시고 未納동문께서는 이달말까지 솔선하여 납부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 會 費 내 역 —

- 一般會員 ····· 1만원
- 理 事 ····· 5만원
- 常任理事 ····· 10~20만원
- 監 事 ····· 30만원
- 副會長 ····· 50만원
- 會 長 ····· 1백만원

◇師範大學
▲權清子37 성남성보상고교장
▲金寬泳55 서울여고교장
▲金相玉51 청주교대교수
▲金爽炫60 한양대인문대교수
▲金在恩54 이화여대교수
▲金燦三50 동산고이사
▲金千洪 인천시교위교육감
▲盧載敏66 신일축산공사사장
▲朴英子 부산동부교육구청
▲朴鍾世59 KORAD㈜대표
▲朴漢植63 한국교원대교수
▲沈春燮50 길스카웃서울연맹장
▲吳培根49 잠실고교교장
▲柳光烈56 성화출판사사장
▲李容勳59 동작교육구청학무과장
▲林仁秀58 한림출판사사장
▲張宗澤59 서울과학교육원장
▲趙南善56 요셉인쇄공사대표
▲趙明烈53 숙명여대교수
▲崔赫祥51 이화산업㈜사장

◇商科大學
▲權義宅61 대한석탄공사부사장

▲趙 喆48 제일화섬㈜회장
▲趙太濟60 전무림통상㈜사장
▲陳 稔63 해운한만청장
▲崔圭燮58 ㈜부학주정사장
▲崔秀逸61 쌍용해운㈜사장
▲崔昌杰64 인천제철㈜대표이사
▲許盛鎬58 고려아연㈜부회장
▲崔昌杰64 유진해운대표이사

◇獸醫科大學
▲羅鍾克58 한국승마협회
▲朴根植57 가축위생연구소

◇藥學大學
▲李昌紀59 국립보건원안전성부장

◇音樂大學
▲金萬福48 숙명여대음대교수
▲李成均57 서울대음대교수
▲趙三珍62 건국대음대교수

◇醫科大學
▲高光昱51 서울대병원부원장

一般會員

◇人文大學
▲고명섭86
▲김우곤86
▲김재주
▲김학근80
▲김학래78
▲배성운84
▲변원일76
▲서원석
▲염승섭61
▲유형식63
▲이종한
▲조태영76
▲진상옥77
▲최용원86
▲오병남

◇社會大學
▲김현섭
▲박태순64
▲오철수67
▲유영훈63
▲이남기76
▲이동복
▲이민재87
▲이영훈78
▲이용연77
▲조경숙87
▲최승욱86

◇自然大學
▲박성찬86
▲박세진80
▲서영수87
▲서의훈78
▲윤병국79
▲윤혜영85
▲이수경
▲이준승64
▲이희정82
▲장태식80
▲정연관86
▲정윤용78
▲진 민82
▲표순승

◇家政大學
▲고영숙74
▲김명자69
▲박광순
▲박선경
▲박용숙69
▲박혜정83
▲여의주
▲오경숙82
▲이기춘
▲이선영
▲이정자81
▲정희경87
▲주정일48
▲진홍숙
▲최경희83

◇經營大學
▲김경수82
▲남기명82
▲박정래76
▲신철호86
▲양기봉
▲유무성66
▲이인환83
▲임태희
▲정 단67

◇工科大學
▲강근택76
▲강문석
▲강승욱68
▲강승순75
▲강태환
▲강형원61
▲고황규72
▲권경식70
▲권영선78
▲권이묵51
▲김건희73
▲김경식52
▲김경호79
▲김광일85
▲김광택
▲김대건66
▲김대규65
▲김대모66
▲김덕우85
▲김덕재58
▲김덕태77
▲김명근86
▲김방태64
▲김부기58
▲김세진69
▲김성운81
▲김영치64
▲김순웅84
▲김용길68
▲김용익54
▲김원만53
▲김원식80
▲김유도62
▲김정배55
▲김종민78
▲김동훈50
▲김종술73
▲김종석82

(16면 국수 표시)

◇醫學大學
▶김정수 ▶김정수 ▶김정수

母校소식

大學院 시험제도 일부 改善

外國人학생 韓國語 필수

音·美大는 외국어 選擇 자유

모교의 대학원 입학및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시행방안이 일부 개선됐다.

이는「대학원 위원회」제5차 회의에서 확정된 것으로서 그 내용의 주요골자는 ▲박사과정의 논문제출자격시험의 경우, 독어·불어에 한하여 해당 교과목을 하계 계절수업에서 수강하게 하여 성적이 일정 수준 이상일때에는 자격시험을 면제하며 ▲외국인 학생 석·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외국어시험에서 한국어를필수로 한다는 것과 ▲예술학계 대학원의 외국어시험에서는 영어를 필수과목으로 부과하지 않고 응시자가 영어 및 제2외국어 과목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상세한 시행방안은 다음과 같다.

◇교과목 수강으로 논문제출자격 제2외국어시험 면제

박사과정의 독어·불어 과목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교과목을 개설하여 이수하게 한 후, 수강으로 논문제출자격 제2외국어시험 면제

◇외국인 학생 석·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외국어시험

1과목의 외국어를 응시하는 학과의 외국어를 필수로 하고, 2과목의 외국어를 응시하는 학과의 외국어를 필수로 하되 영어 및 제2외국어(자국어 제외)에서 1과목을 선택한다.

한국어 시험의 시행방법은 필담고사로, 교무처가 시험을 주관하고 국어국문학과에서 출제및 채점을 맡는다. 문제형식은 주관식과 객관식이 각각 50%로, 주관식은 작문(2·3개 제목 중 택일)또는 자유제목) 객관식은 어휘(한자 읽기 약간 포함)·문법·독해 등의 다양한 형식이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외국인 학생의 경우 한국어교육의 소홀, 자국어의 비영어권인 학생과의 평성 등을 고려하여 취해진 것이다. 단 현재 재적생에 대해서는 현행제도와 병행하여 실시한다.

◇예술학계 대학원 입학 및 논문제출 자격

석사과정 예술학계(미술대학·음악대학)대학원 입학 및 석사학위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에는영어를 필수과목으로 부과하지 않고 영어·제2외국어에서 응시자가 선택하되 영어 출제문제와 같은 수준 정도로 출제하며 사전을 지참하지 않고 응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파란을 기준으로 취득 점수가 일정수준이상일 때에는 자격시험을 면제한다.

단 하계 계절수업과관계없이 매학기초 시행되는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은 종래와 같이 계속실시한다.

◇외국인 학생 석·박사학위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시험

외국인 학생의 경우, 한국어 시험 및 채점은 종래와 같이 계속 실시한다.

肝炎 양성반응 7%

母校生 집단 檢診결과

지난 5월 4일까지 실시된 89학년도 재학생집단검진 결과 검사학생의 7%가 감염진단을 받아 필요로 하고, 55%가 감염예방접종 대상자로 판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한 중 13.3%가 참여했다. 이번 검사에는 대상자 26명, 소변검사 재검이 18명, 간염항원양성자로 협압측정재검 대상자가 44명, X선 재검이 또 나타났다.

1학기 奬學金 수혜율 42·7%

지난해보다 2포인트 떨어져

89학년도 1학기 장학금 지급액이 40억5천여만원으로 지난해 1학기에 비해 약 6억원정도 늘어났다. 그러나 수혜율은 총등록생수 2만8천5백32명(학부 및 대학원생 포함) 중 1만2천1백87명이 혜택을 받음으로써 작년 1학기의 44·8%에 비해 2·1포인트 낮은 42·7%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80년 1학기 때의 33·4%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로 지급되는 장학금총액수는 해마다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학비부담이 줄어들고 있지 않음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참고로 지난 82년도 1학기때는 수혜율이 69·9%에 달한 적도 있었다.

지급된 장학금을 내역별로 살펴보면 하비면제 장학금등 교내장학금이 총 40억5천만원중 약 77%인 31억2천만원을 차지, 교외단체장학금 등의 교외장학금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教授요원 公開채용

20명內外…書類마감 7월31일

모교에서는 분야별로교수요원(전임강사이상) 약간명을 공개 모집 한다.

모집분야는 △社會科學大學 정치학과의 比較政治, 외교학과의 國際政治 이론 또는 國際政治經濟學, 경제학과의 財政學 △自然科學大學 수학과의 解析學·幾何學·應用數學, 대기과학과의 大氣力學이다. 또 △工科大學은 건축학과의 건축계획 原論 및 설계, 전기공학과의 電力電子·레이저공학·컴퓨터응용·超電導工學, 전자공학과의 데이타 通信 또는(Microwave·Electroptics) 화학공학과의 에너지工程 工學·분리공정 및 열역학·화공재료공정이며 △農科大學은 농생물학과(응용곤충전공)의 화학적 防除(살충기작론)이다.

그리고 △師範大學은 교육학과의 教育史學·학교상담학, 사회교육과의 경제교육, 체육교육과의 생체역학이며 △藥學大學은 약학과의 生藥學 △音樂大學은 작곡과의 作曲 △醫科大學은 의학과의 解剖學 △保健大學院은 보건관리학과의 母子保健學 △工學大學은 기계공학과의 機械工學·금속공학과의 金屬工學·화학공학과의 化學工學·전기공학과의 電氣工學·전자공학과의 電子工學·통신공학과의 通信工學·컴퓨터공학과의 컴퓨터工學·산업공학과의 産業工學·건축공학과의 建築工學·토목공학과의 土木工學·도시공학과의 都市工學·원자력공학과의 原子力工學·재료공학과의 材料工學·환경공학과의 環境工學·해양공학과의 海洋工學·항공우주공학과의 航空宇宙工學·조선공학과의 造船工學·기계설계학과의 機械設計學·자동차공학과의 自動車工學·정밀기계공학과의 精密機械工學·섬유공학과의 纖維工學·유기화학공학과의 有機化學工學·무기화학공학과의 無機化學工學·고분자공학과의 高分子工學·세라믹공학과의 세라믹工學·금속재료공학과의 金屬材料工學·비금속재료공학과의 非金屬材料工學·전자재료공학과의 電子材料工學·전자물리공학과의 電子物理工學·전자화학공학과의 電子化學工學·전자기계공학과의 電子機械工學·전자통신공학과의 電子通信工學·전자계산공학과의 電子計算工學·전자응용공학과의 電子應用